

Hub Korea, 다국적 화학기업 유혹

산자부, DuPont-Shell에 지역본부 설치권유 ... Merck의 투자경험 소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다국적기업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와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개최한 Hub Korea 행사가 9월24일 서울 COEX에서 개막됐다.

<Hub Korea: A Forum on Korea as a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행사에서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계획 및 투자유치 정책 설명을 위한 Business Leader's Round Table을 개최하고 경제 자유구역 시찰 및 설명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행사를 위해 FEDEX, DaimlerChrysler, Alstom International, British Telecom, Ito-Yokado, Northrop Grumman, Johnson Controls, Oceanis, The Gale Company, IEE, Stark Companies International, Dedienne Aerospace 등 세계적 다국적기업 43사가 한국을 방문했으며 화학 및 의약, 에너지 관련기업으로는 DuPont(미국) Shell Gas & Power(영국)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미국), Tractebel EGI(벨기에), CDX Gas, LLC(미국) 등이 참가했다.

첫 번째 행사로 COEX ASEM 홀에서 개최된 Business Leader's Round Table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의지를 설명했다.

윤진식 장관은 현금지원 제도의 신규 도입을 포함한 폭넓은 조세혜택, 입지지원의 확대와 함께 2003년 말까지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의 확실한 청사진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국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기기 등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에 있어 세계적 공급기지와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정태인 기획조정실장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호소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계속된 외국기업의 투자사례 발표에서 Fuji Xerox Korea의 다카수기 노부야 사장은 IMF 이후 "투명한 경영"과 노동조합과의 "상호신뢰 및 대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극복한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Business Leader's Round Table에 참여한 다국적기업 대표들



현재 국내에 TFT-LCD 액정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Merck Korea의 Werner Pfeifer 사장은 한국에서의 투자경험과 기업성공 요인, 투자진출 유망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Hub Korea 행사 2일째인 25일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초청으로 송도 정보화 신도시 시찰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 설명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라남도 및 부산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연관 인프라 구축현황 소

개를 위해 희망 CEO 및 투자담당자들을 현지로 초청해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및 향후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Hub Korea 화학사업 관련 초청기업

구 분	회사명(국적)	한국방문 예정 인사(직책)	비 고
에너지	Tractebel EGI (벨기에)	Mr. Marc JOSZ (President & CEO, Tractebel Asia)	○ 매출액 233억6000만달러 ○ 프랑스 기업 Suez의 자회사 ○ 기존 투자기업, 한전 민영화에 관심
	CDX Gas, LLC (미국)	Mr. Mark Grobmyer (Vice Chairman)	○ 매출액 2200만달러 ○ 에너지 신기술 보유 기업으로 한국을 Basa로 동아시아 석탄광 개발에 관심
제지/ 포장	Leigh-Mardon Pacific Packaging Pte. Ltd(AUS)	Mr. NG CHENG SIAH (General Manager)	○ Amcor의 자회사(매출 70억달러) ○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한국 투자 검토중
화학물류	Katoen Natie (벨기에)	Mr. Fernand Huts (Chairman) Mrs. Karine Huts (Deputy Chairman)	○ 매출액 5억5000만달러 ○ 유럽물류센터 운영시장의 80% 점유 ○ 건조석유화학제품 세계최대 물류기업 ○ 석유화학제품 물류센터건설 추진
정유/ 화학	DuPont(미국)	Mr. John A. Shannon (Vice President)	○ 매출액 253억7000만달러 ○ Fortune Global 500 중 172위 ○ 국내생산 및 마케팅 거점 설치
	Shell Gas & Power(영국)	Mr. Andrew Faulkner (Vice President, North Asia)	○ 매출액 1352억1000만달러 ○ Fortune Global 500 중 8위 ○ 세계 3위의 정유기업
의약/ 의료기기	Abbott Laboratories (미국)	Mr. Munir Shaikh (Vice President & Regional Director, South East Asia)	○ 매출액 162억달러 ○ Fortune Global 500 중 309위 ○ 한국 내 물류거점 설치 검토중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 (미국)	Mr. Owen Garrick, M.D. (Executive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 Licensing)	○ 매출액 231억5000만달러 ○ Fortune Global 500 중 257위 ○ 국내 R&D센터 설립 프로젝트 추진중
	Mathys Medical Ltd(스위스)	Dr. Matthias P. Dunkel (Vice President Sales)	○ 매출액 2억7000만달러 ○ Bone Restructure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약 40% ○ 1996년 진출 이후 2003년 4월까지 626억2000달러 증액 투자 ○ 높은 시장성장률로 인해 한국을 아시아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육성 예정

9월26일까지 계속되는 공식행사와 별도로 투자진출 추진 또는 계획중인 기업들이 각자 희망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상담을 진행할 계획인데, 벨기에의 Katoen Natie는 석유화학 물류센터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25>